



## 부사관 임관뒤 도전 권오현 중위

13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11-1차 고등비행교육 수료식'에서 두 명의 이색 경력을 가진 교육생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고등비행교육을 마치고 정식 공군 조종사로 임명된 강준우 중위(29)와 권오현 중위(26)는 각각 해병대와 공군에서 군 복무 후 공군 사관후보생으로 재입대해 '빨간 마후라'의 꿈을 이룬 새내기 조종사들이다.

강 중위는 어린 시절부터 공군 조종사가 꿈이었다. 공군사관학교 응시는 당연지사였지만 안타깝게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했다. 강 중위는 조종사에 대한 미련을 가진 채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에 진학했고, 이후 해병대로 자원입대했다.

진해기지사령부 해병대 육상 경비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그는 훈련 중 우연히 만난 공군 조종사들을 보고, 잊었던 꿈을 되살려냈다. 해병대 전역 후 사관후보생 조종사 전형에 응시했고 무난히 합격했다. 지난 2009년 사관후보생 122기로 임관한 그는 이날 고등비행교육훈련마저 마쳐 자신의 꿈을 이뤘다.

권오현 중위의 어린 시절 꿈 역시 조종사였다. 그러나 어려운 집안 사정 탓에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자 학비가 보장된 항공과학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밖에 없었다. 졸업 후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그는 대학위탁 교육 대상자로 선발돼 율산대 항공우주공학과에 진학했다. 조종사의 꿈을 잊지 않았던 권 중위는 군인과 학생, 두 가지 신분이었지만 줄곧 노력해 사관후보생 조종사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강 중위와 함께 이날 '새내기 에이스'로 거듭났다.

강 중위는 "어렸을 적 꿈이었던 '파일럿'이 된 오늘 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며 "처음 비행교육

## 해병대 전역 후 도전 강준우 중위

훈련에 입문할 때의 각오와 다짐으로 최종에 공군 전투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 중위는 "국기가 준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영광방위의 큰 뜻을 실천하는 전투조종사이자 참된 군인이 되고 싶다"고 각오를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수료식에서는 모두 39명의 신임 공군 조종사가 배출됐다. 이들은 부대 배치 후 전투기 및 수송기 등 다양한 기종을 배정받아 우리나라 하늘을 지키게 된다.

박종현 공군참모총장은 교육을 마친 조종사들에게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직접 매어 주며 "항재전장(恒在戰場) 의식을 견지해 최고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강의 전사가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올해의 '동구민의 상'



〈구제길〉 〈김영길〉 〈이명종〉

## 농축산 6개 분야 5년 이상 친환경 실천 12명

### '전남 유기농 명인' 선정

전남도는 13일 '친환경농업 추진 위원회'를 열고 벼·밭작물·과수·채소·축산 등 6개 분야에서 5년 이상 유기농법 실천기술을 정립한 농업인 12명을 유기농 명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효율 저비용의 유기농법 확산을 통한 농민 소득 창출 및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남도는 지난해 말 '전남도 유기농명인 선정'을 통해 농민 1호로 뽑았던 나상채씨의 경우 17년째 담양군 무정면 4만8000㎡의 부지에서 단감을 자연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유기농 명인 2호 현영수씨는 순천

읍 양성면에서 저비용 유기농법으로



〈오경배〉

〈나상채〉

〈방선호〉

〈김태현〉

15년간 벼를 재배해온 농사꾼으로 '저비용 유기농법 실천 전문강좌'에 강서로 나서는 등 유기농법 확산에 힘쓰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15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명인 지침서를 전달하는 한편, 보성·담양·영암·영광 등 3개 교육관에서 명인들을 초청, 일반인을 상대로 한 영농법 교육을 진행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실증 치매 노인 끈질긴 수색끝 구조

### 담양경찰서 정경균 경사 '3월의 친절·봉사왕'

"제 아버지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산길을 수색했습니다"

야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치매노인을 끈질기게 수색해 생명을 구한 경찰관이 전남경찰청 3월의 '친절·봉사왕'으로 선정됐다.

주민은 바로 담양경찰서 고서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정경균 경사(48), 정 경사는 지난 3월 5일 창평면에 사는 최모(81)씨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직원과 경계 50여명을 동원, 관내를 살피어 뒀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져도 최씨의 소재는 파악이 힘들었고, 정 경사는 이를 다른 고령인 최씨가 멀리 가지 못했을 판단 아래 인근 야산을 뒤졌다.

주민은 바로 담양경찰서 고서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정경균 경사(48), 정 경사는 지난 3월 5일 창평면에 사는 최모(81)씨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직원과 경계 50여명을 동원, 관내를 살피어 뒀다. 그러나 날이 어

두워져도 최씨의 소재는 파악이 힘들었고, 정 경사는 이를 다른 고령인 최

씨가 멀리 가지 못했을 판단 아래 인

근 야산을 뒤졌다.

정 경사는 4시간 여의 수색 끝에

집에서 1.5km 거리에 위치한 한 암

암 위에서 최모(81)씨를 발견했다. 곧바로 최씨를 순찰차로 광주의 병원까지

후송했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정 경사는 지난해 8월에도 광주읍 하류 중암

천에서 미역을 감던 고등학생 5명이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가는

것을 뛰어들어 구조,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는 "내 아버지라는 생각으로 수

색하고, 경찰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 뿐"이라고 겸손해 했다.

최씨를 발견했다. 곧바로 최씨를 순찰차로 광주의 병원까지 후송했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정 경사는 지난해 8월에도 광주읍 하류 중암

천에서 미역을 감던 고등학생 5명이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가는

것을 뛰어들어 구조,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는 "내 아버지라는 생각으로 수

색하고, 경찰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 뿐"이라고 겸손해 했다.

/김지율기자 kki@kwangju.co.kr

## 광주출신 故 서정우 장학금 수여



서정우 장학금 수여식

단국대(총장 장호성)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의 이름을 딴 '서정우 장학금'을 학생 10명에게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정우 장학금은 고인의 부모가 지난 1월 묘도인 단국대에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대학측은 단과대학별로 1명씩 모두 10명을 선발해 100만원씩 전달했다. 대학측은 매년 서정우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고인의 부친 서래일(53)씨는 "정

우가 생전에 학비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워 했었다"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광주출신인 고 서정우 하사는 2008년 단국대 전인캡퍼스 법학과에 입학해 1학년을 마친 후 2009년 해병대에 자원입대 했고,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만 21세의 나이로 전사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김지율기자 kki@kwangju.co.kr

## 김병조 코레일 광주본부 홍보대사 위촉

코레일 광주본부(본부장 김승영)는 13일 광주역에서 GLORY운동 확산과 안전한 기차 알리기를 위한 광주본부 글로리 홍보대사로 코미디언 김병조씨를 위촉했다.

김씨는 장성 출신으로 1980년대 '일요일밤의 대행진'의 명진행자로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는 조선대 교육대학원 조방교수로 명심보감 강의 등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 SK '아름다운 광주천 만들기' 캠페인



SK텔레콤 등 호남지역 SK 관계사 임직원들이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유덕동 무진로 고가도로 아래 광주천에서 '광주市民의 원터' SK 관계사연합 광주천 ECO 정화활동을 벌였다.

## 한국자유총연맹 '서구민 한기족 돋기 성금'



한국자유총연맹 서부지회(지회장 이낙호)는 13일 광주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회원 연찬회 기념행사'를 갖고, '서구민 한기족 돋기 성금'을 전달했다.

열·순갑·옥자·상윤·상임·종례씨

모친상=발인 14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황성심씨 별세 최일상·경화·경신·경희·경미씨 모친상=발인 14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 부음

▲김여지씨 별세 조민기·남기·봉덕·덕자·덕자·덕자·덕자·덕자·정옥씨 모친상=발인 15일(수)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이귀림씨 별세 김순호·희열·삼

## 謹

## 故人의 夢福을 빙니다 弔

故 신정우 님(여/77세)	장원초등학교(무등산 옆길 1구간) 062-717-7330.
故 광주경찰서 정경균 경사 '3월의 친절·봉사왕'	▲광주 무각사 빛고을 시민을 위한 알기쉬운 불교 이야기 강좌 1~MBC '경재야 놀자' 우승택의 '농업 경'으로 풀어보는 경제이야기 = 6월 ~ 5월 25일(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무각사 불교대학 강의실 선착순 100명. 수강료 10만원. 062-383-0108.
故 서정우 장학금 수여식	▲66만 전·의경 출신 모임=전·의경회 결성. 019-277-0007.
故 김여지씨 별세 조민기·남기·봉덕·덕자·덕자·덕자·덕자·정옥씨	장원초등학교(무등산 옆길 1구간) 062-717-7330.
故 김여지씨 별세 조민기·남기·봉덕·덕자·덕자·덕자·덕자·정옥씨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故 김여지씨 별세 조민기·남기·봉덕·덕자·덕자·덕자·덕자·정옥씨	▲제1회 광주광역시장배 생활체육 트레킹대회=23일(토) 오전 7시 남구 진월동 동성고 운동장. 062-361-2680.
故 김여지씨 별세 조민기·남기·봉덕·덕자·덕자·덕자·덕자·정옥씨	▲대촌중학교 9회 동창회(회장 이재곤)=17일(일) 오전 7시30분 광주 롯데마트 월드점 주차장 출발. 010-2476-3354.
故 김여지씨 별세 조민기·남기·봉덕·덕자·덕자·덕자·덕자·정옥씨	▲대촌중학교 9회 동창회(회장 이재곤)=17일(일) 오전 7시30분 광주 롯데마트 월드점 주차장 출발. 010-2476-3354.
故 김여지씨 별세 조민기·남기·봉덕·덕자·덕자·덕자·덕자·정옥씨	▲담양 고서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류진창) 한마음축제=17일(일) 오전 10시 고서초등학교 운동장. 010-361-23159.
故 김여지씨 별세 조민기·남기·봉덕·덕자·덕자·덕자·덕자·정옥씨	▲당신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